

## “여수엑스포, 국가 지원”

### 盧대통령, 개최 의지 강력 피력

로세르탈레스 BIE총장 접견

노무현 대통령이 2012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와 관련, 정부 차원의 강력한 개최 의지를 밝히 여수박람회 유치 활동에 큰 탄력을 받게 됐다. 노 대통령은 18일 방한중인 로세르탈레스 세계박람회 사무국(BIE)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2012년 세계박람회의 여수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엑스포가 월드컵 축구대회 못지 않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며 “해양부 장관 재직시 준비했던 여수엑스포가 당시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개최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여수권역에 한층 향상된 인프라를 갖추어 문제점을 대폭 보완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여수엑스포 개최가 한국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21세기 한국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삶과 공간 추구를 해양 및 연안에서 새로이 모색하려는 국가 전략적인 면이 함께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한국이 그동안 월드컵과 올림픽 등 세계적인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사실을 설명하며 엑스포 등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보증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엑스포에 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로세르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을 접견,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며 “여수 엑스포의 주제인 ‘살아 있는 바다와 연안 자원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활동’은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로서 과학기술과 접목해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주제”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대전 엑스포가 과학기술과 혼합돼 대전시의 성장과 중부권의 발전으로 잘 연계됐던 경험을 회원국들에게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표명은 ‘2010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국가 계획으로 확정하고 정부차원에서 BIE 회원국과 사무국을 상대로 유치 활동을 벌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력과 견줄만해 향후 정부와 민간기구의 유치 활동이 큰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철도·도로·공항 등 여수지역의 열악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엑스포 부지에 대한 조기 개발이 범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진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과 오찬을 갖고 “여수시도 엑스포 유치를 위한 부지 조성 등 모든 분야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날 오후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과 만찬을 갖고 여수엑스포 유치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국회는 19일 국회 여수박람회 특위위원장 주최의 만찬을 개최하는 한편 오는 20일에는 외교통상부장관과의 오찬, 여수엑스포 유치위원장과 만찬 등을 통해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에게 여수 엑스포 유치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8일 오전 부분파업에 들어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멈춰선 생산라인 옆에서 한 조합원이 드러누워 쉬고 있다. 광주공장은 이날 파업출정식을 갖고 주야 2시간씩 파업에 돌입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 끝내 파업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가 광주시민과 경제계의 ‘파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18일 끝내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이날 오전 출정식과 함께 주야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로써 광주공장은 올해까지 16년 연속파업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됐다.

노조는 오는 20일 사측과의 10차 교섭에서도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5일 중앙경쟁대책위

원회를 소집, 향후 파업수위를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노조는 ▲월 임금 10만6천221원(기본급 대비 7.8%) 인상 및 성과급 300% 지급 ▲징계위원회 노사동수, 조합선임자 이사회 참여, 해외공장 사업과 관련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노사합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공장은 이날 노조파업으로 230여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3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노조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파업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에도 광주공장은 11일 파업기간 동안 생산차질 9천여대, 영업손실액 1천400여원을 입었고 기아자동차 전체로는 생산차질 34만여대, 영업손실액 4천900여원을 기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광주·전남 폭우 고비 넘겼다

### 완도 등 18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물 폭탄’은 없었다. 한반도 중부권을 강타한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큰 피해가 우려됐으나, 18일 오후 2시와 4시를 기해 광주·전남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모두 해제됐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에는 62.5mm의 비가 내렸고, 전남은 ▲구례(성삼재) 95mm ▲장성 59.5mm ▲담양 57.5mm ▲순천 34.5mm ▲목포 24.5mm의 강우량을 각각 기록했

다. 우려됐던 집중호우(시간당 30mm 이상)는 없었고, 이날 정오~오후 1시 장성에 내린 20mm가 시간당 최고 강우량이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9일 광주·전남에 20~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이라며 예보했으며, 오는 21일부터는 장마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24일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18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한명숙 국무총리)를 열어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로 67억원의 피해를 입은 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 지역인 완도군·울산시 울주군·경북 경주시·경남 진주시·의령군·고성군·남해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합천군 등 11곳과,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평강군·양양군·횡성군·정선군·홍천군·양양군 등 7곳이 선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지역별 재정력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 최저 50%까지 국고가 지원된다.

또 다른 지역에 우선해 의료, 방역, 방재,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서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 조치가 뒤따르게 돼 재해 복구에 큰 도움을 받게 된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후원학원 창립 50년 역사관 운영  
 남부대학교  
 http://www.nsbu.ac.kr  
 새롭고 담담한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rim.ac.kr

국가 36년 정보의 메카니즘  
 SINCE 1970  
 국내 최고의 물가전문지  
 綜合物價情報  
 http://www.kpi.or.kr  
 생생한 한국물가정보  
 TEL.1977-7900 FAX.1977-4802

30대여성 80% 만족한 피부 미백제  
 이번만큼은 후회없이  
 딥화이트닝  
 IOPE